

오피니언

김별아의 '문학과 삶'



지금, 그리고 마지막

북극대는 세사(世事)에 꺼들려 정신없이 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가을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은 그 높고 맑음이 과연 사계의 으뜸이라 할 만하다. 코앞의 일에 애면글면하며 지낸 날들이 민망스럽다. 만사를 불구하고 운동화를 깨어 신은 채 작정 없이 길을 나섰다. 답지도 출지도 않고 살랑살랑 바람이 부드러우니 걷기에 그만이다. 눈길을 멀리 던지니 옛부터에서부터 단풍이 조금씩 하산하고 있다. 불꽃은 아래에서 위로 치켜 피고 단풍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니... 곧 단산이 붉은 것으로 타오르리라.

우리는 흔히 인생을 계절에 빗대어 말하곤 한다. 계절이 바뀌는 심비로움 이치가 사람의 삶에도 고스란히 때문이다. 청춘은 그 이름 그대로 붉다. 젊음은 왕성한 여름이고, 중년은 풍성한 가을이다. 그런가하면 노년은 가쁘게 달음질할 시간을 갈무리하는 고즈넉한 겨울로 비유된다.

세월이 좋아 각종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서 더위와 추위가 조절되고 계절마저 잊히는 지경이다. 하지만 영양소가 풍부 한 계절 음식을 먹고 더위와 추위에 면역력을 길러야 건강한 것처럼, 인생도 계절의 특성에 걸맞게 꾸려가는 것이 건전한 터이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예능은이

청춘과 젊음은 안쓰럽다. 왕성한 심혈 정신을 넘어서 중용을 잃은 중년과 노년은 주책없이 느껴진다. 그래서 '젊이 든다'는 말은 결국 '젊기를 안다'는 뜻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조금은 철없이, 폼 잡지 않고 살기로 마음먹은 타이긴 하지만, 나 도 내 계절에 걸맞은 삶을 시시때때로 고민한다.

가을인 만큼 넉넉하고 너그러워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한편 다가올 긴 겨울에 대비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킬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일흔 살이 넘은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나라에서 기로소(耆老所)를 설치하고 임금이 직접 참여했다. 평범한 사람들 역시 여든 살이 넘으면 나라에서 베푸는 양로연(養老宴)에 초대되어 꽃과 술잔과 만수무강하시라는 덕담을 들었다. 그처럼 장수(長壽)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큰 복이자 덕이었다. 지금 우리는 깜빡 잊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평균수명이 60세를 넘은 것도 고작 50년도 채 되지 않은 1970년대의 일이었다. 그런데 2012년 3월 기준으로 한국 사회의 평균수명은 79.05세이며, 한 연구에 의하면 2020년에는 87.4세, 2030년에는 90.8세로 기대된다고 한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목전에 있다.

하지만 예전보다 몇 급질을 더 살게 된 현대인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공포라는 비명소리마저 드높다. 너무 긴 겨울을 상상하노라면 절로 추워진다. 숨 가쁘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밀려나,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겨울밤의 깊은 고독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면 기다리고 있을 마지막 순간, 삶의 끝이자 죽음의 시작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7년 전 장년퇴직을 한 아버지는 그동안 놀랍도록 왕성하게 취미생활 겸 문화 활동을 해왔다. 어머니와 함께 노래교실에 다니고 실버밴드 활동을 하고 각종 교양 강좌에 참여하는 등,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기도는 자식들이 도통 통화할 수가 없다고 호소할 만큼 바쁘게 지내왔다. 그런데 그 회오리바람이 한바탕 지나고 '노는 일'에도 얼마간 지루하고 지쳤다는 이야기가 들릴 무렵, 아버지가 새 일을 하나 시작했다고 알려왔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웰다잉(Well-dying)' 전문 강사가 되어 강의를 다닌다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이 놓이고 든든해졌다. 스스로 죽음을 배우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외면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삶의 의의이기 때문이다.

'웰빙(well-being)'만이나 '웰다잉'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번역서를 통해 서구의 '웰다잉' 운동이 소개된 데 이어, '한국죽음학회'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에 메시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인생을 멋지게 내려놓는 법',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품위 있는 죽음의 조건'이라는 책들의 소개에서 미루어 짐작하듯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삶을 다시 점검하고 정리한다는 것이다. 호스피스 의사로서 80여 명의 환자에게 임종 선언을 해왔다는 김여환씨의 '웰다잉 10계명' 중 몇 구절은 겨울이 아니라 가을, 아니 어느 때라도 반드시 새겨 두어야 할 삶의 지침이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행복을 양보하지 말 것, 마지막에 할 말을 지금 할 것, 죽음을 불행인 것처럼 대하지 말 것, 마지막 순간까지 즐길 취미를 만들 것...

활기차게 '웰다잉'을 말하는 아버지가 존경스럽고 닮고 싶다. 누구나 언젠가 어떻게든 맞닥뜨려야 할 이별이기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금이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 <소셜>

중고칼럼



이재술

페치카(pechka), 과거 오랫동안 군 내무반의 난방을 책임졌던 러시아식 벽난로다. 이제는 적어도 병영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당시에 군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겨울철 페치카는 많은 추억이 묻어있다.

80년대 초 어느 해, 논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충대를 거쳐 경기도의 한 부대에 배치된 때는 아직 한겨울의 맹위가 읊조려지지 않은 2월의 끝자락이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동안 겪지 못했던 매서운 추위와 함께 페치카와의 첫 만남을 경험했다.

그때, 그 페치카 곁에는 항상 갈색 깃털의

작은 몸집을 가진 예쁜 새, 십자매가 있었다. 그렇게 내무반에 십자매를 기르는 이유는, 페치카에 틀이 생겨 가스(일산화탄소)가 새어 나올 경우 가스에 민감한 십자매가 먼저 반응(죽음)하기 때문이었다.

십자매의 죽음은 내무반에 일산화탄소가 유출되고 있다는 일종의 경계경보였고, 십자매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는 희생양이었고, 어린양이었다.

내무반의 십자매와 십자매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그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가난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포기하는 이들, 무한 경쟁에서의 탈락으로 좌절한 이들의 존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 존속을 위협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위험신호임에 틀림없다.

가족 치료에서는, 고무풍선이 터지는 것

은 풍선의 파열된 부분, 곧 풍선의 가장 약한 부분 때문이 아니라 풍선 전체의 높은 압력이라는 선형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가족 구성원 중에 문제를 드러낸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통해 "우리 집에 문제가 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라며 가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외부로 알리는 재난구조(S.O.S)의 송신자로 이해한다.

그래서 가족상담에서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확인된 환자'라 표기하고 이 구성원을 통해 가족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곧 가족 구성원 가운데 문제를 가진 사람의 존재와 그가 가진 문제의 양상은 바로 가족의 문제 유무와 그 대응을 판단하는 시금석인 것이다.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그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알고 있는 집합의 외적 증상이 이 증상을 통해 우리 사회

39만개의 서재가 만드는 '도서관 도시'



박영철

사람은 서재(書齋)다. 세상을 대화하고,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쌓게 해주는 것이 책이라면 사람은 그 책을 모아놓은 서재다. 어떤 이는 몇 만권에 해당하는 지식을 쌓고 있다. 또 다른 이는 자신이 살아온 세월만큼의 경험과 지혜를 품고 있다. '세 사람이 모이면 그중에서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굳이 떠올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책이란 어찌 보면 사람의 이야기를 활자로 옮겨 놓은 것에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광산구에는 39만 개의 서재가 있다. 무려 39만 개의 서재가 매일매일 쉬 쉬며 살아간다.

지난 9월 11일 광산구는 '책 보고(寶庫) 꿈꾸는 도서관 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책의 도시'는 많지만 '도서관 도시'는 세계 최 초라 한다.

도서관 도시란 쉽게 말해 39만 개의 서재, 즉 39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지식·지혜를 나누고, 교류하는 도시다. 그리고 도서관이 그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39만 명이 품고 있는 각각의 서재가 도서관을 가득 채우는 도시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가까워야 한다. 광산구는 '주민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간 광산구가 작은 도서관 설립에 공들인 이유가 여기 있다. 주민들이 삶의 일부로 도서관을 접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작은 도서관이다. 현재 광산구의 작은 도서관은 67개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또 활성화를 위

촉한 점을 보완해주는 거점이 될 것이다.

셋째,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도서관의 주인은 책이 아니다. 사람이 다. 도서관 도시는 책과 콘텐츠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 도서관'을 표방한다. 사람 중심 도서관이란 주민들이 품고 있는 경험·지식·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나누는 도서관을 말한다.

또 그런 나눔이 자연스럽도록 제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다듬어가는 도서관에 다름없다. 많은 사람의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39만개의 삶과 문화가 상호교류하는 도서관 도시의 핵심은 주민참여다.

'토요일 오후 3시 00도서관에서 만남이다.' 내가 꿈꾸는 도서관 도시의 단편이다. 사람들에게 약속이 일상이듯 도서관이 주민들의 삶의 일부가 되는 도시다. 알고 지내는 사람이 도서관을 통해 더 가까워지는 도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도서관을 매개로 이뤄지는 도시.

그 도시의 도서관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지식과 영혼의 무한교류를 시작하고 싶다. <광산구 교육도서관과장>

직불카드 사용 더 늘려 신용카드 과소비 막아야

우리나라가 IMF를 맞은 가장 큰 원인은 신용카드 대란 때문이었다. 그때 온 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카드 빚에 허덕이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직장인들, 주부들에게는 신용카드를 만들라는 은행들의 유혹이 꾸준히 계속되는 실정이다. 필자의 은행에 불임을 보러 가면 은행 담당자가 제일 먼저 권유하는 것이 바로 신용카드를 만들라는 것이다.

특히 주변의 친지나 지인이 은행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 역시 카드 좀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이고, 카드가 그려잖아도 많아서 걱정이라고 말하면 그쪽에서는 만들어서 가위로 잘라버리면 된다는 말이다.

현재 발급된 국내 신용카드 수는 1억2000만 장이라고 한다. 1인당 5장쯤이나 기가 막힌다. 금융회사들이 과잉경쟁을 벌인 결과다. 이 때문에 자기 수입은 생각지 않고 일

단 쓰고 보자는 과소비로 흘러가고, 걸핏하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기대는 풍조 때문에 가계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이다.

신용카드 남용 피해를 줄이려면 신용카드 회사가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에게까지 마구 잡모로 카드를 발급해 줘온 층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무더기로 신용 불량자를 찍어내는 걸 막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엔 정부가 앞으로는 20세가 넘고, 소득이 부채 원리금 상환액보다 많고, 신용등급이 1~6등급인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기존에 스탠 카드 사용자

시설

정부 보란듯이 F1대회 완벽히 치르자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인 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가 오늘 영암 코리아 서킷에서 개막된다. 12~13일 이틀동안 예선을 거쳐 14일 정오 슈퍼레이스 결승이 끝나면 이날 오후 3시 대망의 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선이 펼쳐진다.

2010년 이래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F1에는 20만 명에 이르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승 후보인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와 세바스찬 베텔(독일·레드불)의 쉐도우 경쟁이 영암에서 윤곽이 드러나 이를 시청하기 위한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된다.

또, 코리아 그랑프리의 완주를 알리는 체커플래기에 선정된 세계적 가수 싸이가 결선이 끝난 오후 6시부터 경주장 내 삼설공연장에서 축하공연을 펼치게 돼 있어 'F1 열광의 도가니'에 화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적 개최를 위한 원활한 대회 운영과 준비, 교통 편의와 숙박시설 확보

등 손님맞이도 차질이 없다고 한다. 지난 2년의 대회를 통해 노하우를 쌓으면서 F1이 사실상 안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게다가 이번 대회부터 TV 중계권료와 원천세를 비롯 230여 원 가량의 비용이 줄어 드는 등 수지 개선도 기대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빛난치'라는 데 있다. 이번 대회 비용 중 당초 300여 원을 목표보였던 정부 지원예산이 50여 원에 불과하고, 내년도 요청한 예산 240여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명박 정권에서 F1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여수세계박람회와 런던올림픽 등에 밀리고, 경기 침체와 연이은 태풍 피해 등으로 티켓 판매 및 후원, 마케팅도 저조한 형편이다.

그렇다고 F1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정부 보란듯이 완벽히 치러야 한다. 그제 향후에도 지원 요구를 위한 명분을 갖는 것이다. 다시한번 성과 준비, 교통 편의와 숙박시설 확보

전남도 '실적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

전남도의 투자유치, 수출계약 과대포장 등 '실적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소급박람회와 수출계약 과대포장하고 순천정원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해 설립 계약한 호텔 5곳도 개막전 오픈이 불투명함에도 이를 성과로 홍보해 내실 보다 실적에 급급, 반축을 사고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10~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소급박람회'에 참여한 8개 업체가 미국·일본·중국 등의 바이어와 18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8개 업체 모두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고, 1개의 업체만 소급 샘플 제공 등을 위해 계약을 맺은 상태다.

베트남과 600만 달러 수출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A업체 등 대부분 업체는 바이어와 상담만 한 상태이고, 200만 달러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전남도가 발표한 B업체는 아예 바이어를 만지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체결했다고 홍보된 C업체는 실적을 묻는 박람회 관계자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도는 버젓이 실적으로 잡았으니 이런 황당한 부풀리기가 어디 있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순천정원박람회 관광객 맞이 위해 최근 도가 유치한 호텔 5곳 중 상당수는 박람회 개막 전 개장이 불투명하다. 도가 5개 업체와 600실 규모 호텔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인허가를 받은 곳은 2곳에 불과하고 18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8개 업체 모두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고, 1개의 업체만 소급 샘플 제공 등을 위해 계약을 맺은 상태다.

베트남과 600만 달러 수출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A업체 등 대부분 업체는 바이어와 상담만 한 상태이고, 200만 달러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전남도가 발표한 B업체는 아예 바이어를 만지지 못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 100만 달러 수출계약을

無等鼓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사는 김찬심 할머니(73)는 1975년 동구 충장로2가 옛 광주우체국 뒤편 학생회관 골목에서 튀김장사를 했다. 우체국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점심때가 되면 두 평 남짓한 할머니 가게에 모여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한 아저씨가 상주를 가지고 왔는데 밥이 부족했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밥 대신 튀김을 싸 먹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혹 시나 하는 마음에 튀김과 함께 상주를 내놓자 손님들도 "느끼하지 않고 맛있다"고 했다. 할머니는 '상추가 튀김의 느끼한 맛을 없애는 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때부터 상추튀김을 팔았다.

튀김을 청양고추와 양파를 잘게 잘라 넣은 양념장에 찍어 보쌈처럼 상주에 싸 먹는 맛이 입소문이 나자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후 주변에 상추튀김 가게가 하나둘 들어서면서 '상추튀김거리'가 형성됐다.

학생회관 골목 일명 '500남 하우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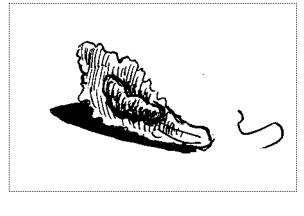
탄생한 배경이다. 먹을거리가 흔치 않았던 1970~80년대 상추튀김은 훌륭한 간식거리였다. 500원이면 오징어·잡채 등 각종 튀김을 신선한 상주에 싸서 먹을 수 있어 웬만한 광주시민이라면 상추튀김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4000원이면 즐길 수 있는 대중 간식거리로, 이제는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잡았다.

광주출신의 인기 아이돌 가수 수지(미쓰에이)는 얼마전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학창시절 즐겨 먹었던 상추튀김의 추억을 소개해 전국적인 명성을 타고 있다.

광주시가 공모전을 통해 상추튀김의 유래를 밝혀냈다. 시는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상추튀김을 남도의 향토 음식으로 관광상품화하겠다고 한다. 원도 논란도 잠재우고 향토자원도 하나 더 발굴한 셈이니 반가운 일이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상추튀김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慶完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광복로 2가 20-2 우편번호 501-11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어촌매주 2200-62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광고이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1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전산팀 2200-685 |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김현주·광주시 동구 신수동